광주 특급호텔 힘겨운 여름나기

행사 없고 비수기 겹쳐 객실 이용률 급감

라마다 40%·홀리데이인 광주 15% 불과

광주지역 특급호텔의 '여름나기'가 힘겹다.

여름철 비수기로 인해 객실 이용률이 급감하는데다 최근 마땅한 국제적 행사가 없어 손님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각 호텔들이 하계휴가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여름 패키지' 도 아직까지 반응이 미비하다.

21일 라마다플라자 광주와 홀리데이인에 따르면 각각 120개와 205개의 객실을 보유한 이들 호텔의 올 여름 평균 객실 이용률은 라마다플라자 40%, 홀리데이인 15%에 머물고 있다.

여름철을 제외한 라마다플라자의 평균 객실 이용률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말 문을 연 홀리데이인은 선발주자인 라마다플라자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 평균 30여개의 객실만 고객이 찾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조용한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특급호텔의 여름 패키지'도 광주지역 호텔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특급호텔들이 앞다퉈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이 지역 특급호텔 여름패키지 구매율은 낮다. 라마다플라자는 이달 초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슈페리어룸(Superior room) 1박에 2인 조식을 더한 패키지A(16만원), 슈페리어룸 1박에 2인 조식, 사우나·피트니스를 더한 패키지B (17만원) 등 3개의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지만 현재 총 26건의 예약에 머물렀다. 지난해 여름 200여건의 예약이 몰렸던 것에 비교하면 아직 두 달여의 기간이 남긴 했지만 10% 남짓에 불과하다.

홀리데이인도 딜럭스(Deluxe), 주니어 수트(Junior Suite) 등 객실별로 수영장과 헬스 등을 더한 여름패키지를 17만원, 23만원, 30만원에 8월 말까지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인기몰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박모(여·31)씨는 "여름휴가를 특급호텔의 여름 패키지로 보내려고 광주지역 특급호텔에 문의를 했지만, 가격은 서울과 비슷해도 제공 혜택에서 차이가 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급호텔다운 프로모션과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홀리데이인 관계자는 "광주는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이 적은데다 행사가 아니면 객실 채우기가 어려운 면모가 있다"며 "아직은 시장 진입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특급호텔들이 영업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본 수요를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주대 호텔경영학과 박종찬 교수는 "특급호텔은 내수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받쳐줘야하는데 아직 광주지역은 특급호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특급호텔들이 기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객실 장사를 너머 시민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전문 인력 수급을 통한 확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21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광주은행 201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부점장들에게 격려품으로 우산을 전달하며 고객응대와 마케팅 만전을 부탁하고 있다.

광주은행 상반기 영업수익 2583억원

광주은행이 경기침체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올 상반기 순영업수익이 전년 상반기 보다 6.9% 신장한 2583억원을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21일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순영업이익이 25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17억원 대비 11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잠정 당기순이익도 764억원을 실현해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757억원을 뛰어넘는 하이 어닝 서프라이즈(High Earning Surprise)의 쾌거를 이뤘다.

또한 광주은행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3'를 획득해 한국산업서비스 품질지수(KSQI) 우수기관 선정, 지식경제부 주관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등 올 상반기에 브랜드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은행은 이에 머물지 않고 2011년 하반기 경영목표를 '수익중심의 건전경영을 통한 하이 어닝서프라이즈 달성'으로 정하고 ▲지속적 자산클린화 및 건전성 제고, ▲리테일 및 중소깅버 영업력 강화, ▲지역밀착 영업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수익기반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원두(OneDo) 경영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5대 중점 전략으로 채택했다.

송기진 은행장은 이날 "상반기 여세를 몰아 영업수익 52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1400억원 이상을 기필코 달성하자"고 강조 한 뒤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말고 고객이 자금을 필요할 때 적시에 지원 하라"는 뜻으로 각 부점장들에게 격려품으로 우산을 전달하며 고객응대와 마케팅 만전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2012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 조성에 앞장서고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여수에서 개최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장마 끝나도 채소값 비싸

장마가 끝나고 농산물 수급이 늘고 있지만 갑작스런 무더위에 품질이 회복되지 않아 시장 가격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21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3포기당 6250원이던 배추는 12% 오른 7000원이 됐다.

무는 1개에 1580원에서 1980원으로 25% 상승했고, 양파는 3kg에 3600원에서 300원 올랐다. 백오이(3개)도 90원 오른 2500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대파는 1단에 165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졌다. 과일은 수박(8kg)이 약 7% 하락해 1만7500원에 거래됐고, 포도(켐벨, 1.5kg)와 사과(6개)는 각각 1만1500원, 3800원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이상윤 前 KIA 코치 마트 개업

KIA타이거즈 이상윤(51) 전 수석코치가 유통업에 도전한다.

이 코치는 29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지구에 1000여㎡(300평) 규모의 '영암마트'운남점을 개업한다.

이 코치는 "사업은 처음이지만 정직한 상품으로 고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전남 6월 무역수지 4억달러 흑자

자동차·선박 등 수출 늘고 원자재 수입 줄어

광주·전남지역의 6월중 무역수지가 3억9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 6월 광주·전남 무역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달보다 19.3% 증가한 49억7300만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45억7900만달러로 무역수지 3억9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의 타이어, 자동차와 전남의 화공품, 선박 등 주요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원유, 철광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이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벼로 광주의 수출은 전달보다 27.5% 증가한 11억3900만달러, 수입은 7.1% 증가한 4억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타이어(7%), 정밀기기(185%), 전자제품(51.5%) 등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전달보다 6.7% 감소했으나 미국(33.4%), 중동(39%), 일본(20.9%), 중국(41.3%)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

또 수입은 품목별로 가전제품(-6.9%), 경공업원료(-3.6%), 철강재(-12.2%) 등이 감소했지만 기계류와 전기·전자기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1%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은 화공품(27.9%)과 선박(327.3%)등의 호조로 17% 증가한 38억3300만달러, 수입은 원유, 철광, 석유제품 등 주요 원자재의 감소세 영향으로 8.5% 감소한 40억9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원짜리 동전 어디로 갔나

환수율 4.7%…전년비 절반

올해 상반기 중 10원짜리 동전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만원권은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환수율이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원화 환수율은 4.7%로 전년 1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10원화 환수율이 4.7%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10원짜리를 100만원어치 발행했다면 그 중 4만7천원만 회수했다는 뜻이다.

10원화 환수율은 다른 동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500원화 환수율은 37.5%, 100원화 환수율은 46.2%로 전년 20.5%, 29.3%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연합뉴스

전남신보 올 실적 최대 전망

연말까지 2100억원 예상…10주년 행사도 풍성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역대 최고의 보증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창립 10주년을 맞는 전남신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394개 업체에 1082억원의 보증실적을 올려 연말까지 연간 역대 최고의 보증실적인 2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신보의 그동안 연간 최고 보증실적은 지난 2009년 2075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1852억원이었다.

지난 2001년 7월 설립된 전남신보의 보증 공급 누계는 5만51개 업체에 7913억원에 달하며 그동안 전남지역 기업 4곳 중 1곳은 전남신보를 이용했을 정도로 보증이용이 확대됐다.

전남신보 이계연(51)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업무개선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1등 재단, 사랑받는 재단으로 거듭나겠다"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생산·유통가공업체 지원을 위해 보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보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 강진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갖는다.

28일에는 신규보증서 발급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간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 행사로 230여 개 업체에게 1000여 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진도 조도(4일), 신안 비금도(5일), 완도 소안도(8일), 고흥 거금도(10일) 등을 차례로 돌며 '찾아가는 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에 본사를 둔 전남신보는 강진지점 개소로, 목포와 화순, 장성 등 4곳의 지점을 두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